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고등학생의 정치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조사 연구

2007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강 광 철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 문

고등학생의 정치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조사 연구

지도교수 류 태 건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강 광 철

강광철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7년 8월 일

주 심 정치학박사 하 봉 규 (인)

위 원 정치학박사 류 태 건 (인)

위 원 정치학박사 이 성 봉 (인)

목 차

목차 i

표 목차 ii

ABSTRACT iv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2

Ⅱ. 이론적 배경 *3*

1. 참여민주주의 개념 3

2. 정치의식과 정치과정 4

3. 사회 경제적 조건, 정치문화, 정치참여 7

4. 선행연구고찰 9

Ⅲ. 연구 방법 및 조사 결과 분석 *11*

1. 연구방법 11

가. 설문지의 구성 11

나.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13

다. 가설의 설정 15

라. 자료의 처리 15

2. 조사 연구 결과의 해석 16

Ⅳ. 결론 및 제언 *47*

참고문헌 51

부록 53

표 목차

< 표 Ⅲ-1 > 분석의 모형 12
< 표 Ⅲ-2 >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13
< 표 Ⅲ-3 >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4
< 표 Ⅲ-4 > 전체 정치의식 17
< 표 Ⅲ-5 > 성별에 따른 정치참여 의식 19
< 표 Ⅲ-6 > 학교유형에 따른 정치참여 의식 21
< 표 Ⅲ-7 > 학년에 따른 정치참여 의식 22
< 표 Ⅲ-8 > 계열에 따른 정치참여 의식 24
< 표 Ⅲ-9 > 부모학력에 따른 정치참여 의식 26
< 표 Ⅲ-10 > 부모직업에 따른 정치참여 의식 29
< 표 Ⅲ-11 > 집의 경제수준에 따른 정치참여 의식 29
< 표 Ⅲ-12 > 성별에 따른 정치체제 인식 31
< 표 Ⅲ-13 > 학교유형에 따른 정치체제 인식 32
< 표 Ⅲ-14 > 학년에 따른 정치체제 인식 33
< 표 Ⅲ-15 > 계열에 따른 정치체제 인식 34
< 표 Ⅲ-16 > 부모학력에 따른 정치체제 인식 36
< 표 Ⅲ-17 > 부모직업에 따른 정치체제 인식 37
< 표 Ⅲ-18 > 집의 경제수준에 따른 정치체제 인식 37
< 표 Ⅲ-19 > 성별에 따른 산출 정책 인식 39
< 표 Ⅲ-20 > 학교유형에 따른 산출 정책 인식 41
< 표 Ⅲ-21 > 학년에 따른 산출 정책 인식 42
< 표 Ⅲ-22 > 계열에 따른 산출 정책 인식 43

< 표 Ⅲ-23 > 부모학력에 따른 산출 정책 인식..... 44
< 표 Ⅲ-24 > 부모직업에 따른 산출 정책 인식..... 45
< 표 Ⅲ-25 > 집의 경제수준에 따른 산출 정책 인식.....46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Political Consciousness of High School Students

Kwang-Chul Ka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state and types of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high school students in Busan, Korea. The objective is to discover the factors positively affecting the consciousness among various conditions.

For this, this study aims at inspecting the state of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high school students in Busan. More specifically analyzed and addressed are the extent of which the types of the political consciousness are, and the extent to which the political consciousness is revealed according to the factors such as gender, school types, school years, school types and social · economic variables. Through this analysis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high school students is recognize.

The result of survey and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 survey shows that girl students are more likely to participate in politics than boys in terms of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self. This is considered that increasing advance of women into the society positively affects girls. Boys' schools show low consciousness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e 11th graders report higher political consciousness that the 10th graders. It is also identified that the students who take the courses of liberal arts have higher political consciousness than those who take the science courses. As for family circumstances, that parents are educated highly and have professional or administrative jobs seems positively influencing.

Second, in terms of the consciousness of the political system, girl students show higher consciousness rather than boys do. This may result from the positive influences of women's increasing social advance and high academic achievements on girl students. The consciousness of the political system is low in co-ed schools rather than any other types of schools. The 11th graders are identified with having more consciousness of the political system rather than the 10th graders do. It is also discovered that the students who take the courses of liberal arts have higher consciousness of the political system than those who take the science courses. As for family circumstances, that parents are educated highly and have professional or administrative jobs seems positively influencing.

Third, in terms of the consciousness of production policy, girl students show higher consciousness rather than boys do. This may result from the positive influences of women's increasing social advance and high academic achievements on girl students. The consciousness of production policy is low in co-ed schools rather than any other types of schools. The 11th graders are identified with having more consciousness of production policy rather than the 10th graders do. It is also discovered that the students who take the courses of liberal arts have higher consciousness of production policy than those who take the science courses. As for family circumstances, that parents are educated highly and do not have professional or administrative jobs seems positively influencing. Especially, unlike the consciousness of th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political system, the result that non professional · administrative occupations give positive influences explains that other professional occupations are more affected by the policy.

Collectively the type of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high schools may be categorized as the obedient type. However, the more continually students are affected by various factors and the more intensive social studies they study according to the curriculum as they advance, the higher consciousness they have. From this outcome, rather than the family factors which are fixed to the extent, school education which develops into positive education may lead

students to be transformed into the passive type and then ultimately into the participatory type.

Accordingly, several points are suggested in order to develop the political consciousness of high school students into positive direction.

First, high consciousness in participatory voting is contrary to the low voting rate in reality. This explains the extent to which the education makes efforts in order to booster the consciousness of voting as a main factor for representative democracy. Although it shows slight differences in other parts according to the general traits of the subjects, however, it remains between 'never participate' and 'seldom participate' far from 'participate.' This requires the exertions for the education to lead the participatory democracy and local autonomy.

Second, as for the consciousness of the political system and policy, when students are higher grades and take the courses of liberal arts, the higher consciousness is identified. From this, it can be concluded that politics education is needed to be emphasized for the 10th graders and the students in the science courses in order to develop into more positive direction. Moreover, students are required to have the substantial experiences by converting the current autonomous activities which stress only voting at school into the activities which stress broader and more direct participation.

Third, although it is believed that men have higher political consciousness than women, female adolescents participate in political activities more actively in reality. This means that females' participation may be concerned with rapidly changing society. Afterwards, it is required to equally educate both men and women on having high consciousness of political participation.

key words: political consciousness, consciousness of political participation, consciousness of political system, consciousness of production policy, participatory democracy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참여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현재 고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의식이 어느 정도이며 개인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지를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국민경선, 인터넷, 20-40대의 젊은 유권자들의 참여가 높았다. 또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지금 각 지역의 시민들의 참여가 매우 요구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은 정치 문화적 기반과 정치적 실제 사이의 불일치, 규범과 현실간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불안정성 등 많은 정치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공동체 구성원의 참여와 지지의 형성, 즉 정치적 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제까지와 같은 국민의 무조건적인 종속적 복종과 헌신으로는 이러한 정치적 통합을 이룰 수 없다. 국민의 국가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야만 이러한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참여가 오로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즉 능동적 참여와 함께 정치체계 구성원들 간의 정치적 행위를 지배하는 규범적 합의를 증가시키는 것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가까운 미래에 법적으로 정치적 권리를 가지게 될 고등

학생의 정치의식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들의 부모들은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적 정치 상황 아래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민감하게 경험하고 오늘날 지방자치 시대를 본 괘도에 올려놓음으로써 민주주의를 한층 더 발전시켜왔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참여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현재 젊은 층인 20-40대의 참여가 두드러졌던 지난 대선과 총선을 통해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참여민주주의가 활성화 되어가는 시점에서 미래 정치사회의 주역으로 활동하게 될 고등학생들은 어떠한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이 개인적 사회경제적 조건들에 따른 정치의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 것이며 그들의 정치의식은 얼마나 참여 민주주의 시대에 부합되는가?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성별, 학년별, 계열별 등에 따라 정치참여 의식과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 산출과정의 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정치의식의 대상은 투입, 산출, 자아, 정치 체제 등을 일컫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아, 정치체제, 산출에 국한시켜 자아(self)의 정치참여 의식, 그리고 정치체제 및 산출 정책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 지역을 본 연구자의 거주지인 부산광역시로 한정하고 3개교를 조사하여 일반화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참여민주주의 개념

손혁재는 참여민주주의를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민주주의의 한 유형으로서 권력의 분산이 이루어지고 일반국민의 자치와 광범한 직접참여가 보장되는 정치형태”라고 정의한다(손혁재, 1997). 위의 정의에서 보듯이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대의제라는 특성상 일반시민의 참여가 어렵다는 것과 권력이 정당에 집중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손혁재는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해 권력의 분산과 일반국민의 광범위한 참여를 보장하는 정치형태로 참여민주주의를 말한다.

참여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참여의 개념은 “사회의 보통 구성원인 시민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Nagel, 1987, 1). 또 김대환은 참여의 개념을 “사회의 보통 구성원이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 으로 정의한다(김대환 1997, 17). “사회의 보통 구성원”이라는 것은 관료나 정치인, 법정대리인, 로비스트 그리고 노조내로 국한할 때의 노조간부 등은 참여의 주체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위로부터 아래로’가 아닌, ‘아래로부터 위로’의 행동만이 참여라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의 목적은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아래로부터 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행동(action)’인 것이다.

정영태는 “참여민주주의는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직접참여

기회를 최대한으로 확대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대폭 도입하는 민주주의의 한 유형이다"라고 정의한다(정영태 1997, 165). 그도 역시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보고 일반 시민들이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참여 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참여민주주의로 보고 있다.

페이트만(Carole Pateman)에 의하면, "참여이론에서 '참여'란 의사결정에 대한 (평등한) 참여를 말한다. 그리고 '정치적 평등'이란 의사결정의 결과를 결정하는 데 대한 권력의 평등을 말한다."(Pateman 1992, 148) 페이트만은 의사결정에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참여민주주의의 본질로 보고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를 살펴볼 때, 참여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의사결정기구에서 배제된 일반 구성원이 의사결정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행동하는 민주주의 한 유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참여민주주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 의식을 높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아야 정치참여 의식도 높아질 것이다.

2. 정치의식과 정치과정

알몬드와 버바는 정치의식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정치적 의식의 대상을 정치 체제, 투입, 산출, 자기(self)로 구분한 바 있다.

첫 번째 대상은 국가라는 정치체계의 전체에 관한 것이다. 즉 국가라는 정치체계에 관하여 어떠한 일반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예컨대 그 국가의

역사, 영토 크기 혹은 헌법상의 특징, 국제 정치에서 갖는 힘의 정도 등에 관한 일반적 지식을 말한다.

두 번째 대상은 정치체계의 투입(input) 측면이다. 즉 정책 형성의 상향적 흐름에 있어서 구조, 역할, 정치적 엘리트, 정책제안 등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정향이 문제가 된다.

세 번째는 정치체계의 산출(output)의 측면이다. 즉 정책집행의 하향적 흐름, 또 이것과 관련된 구조나 결정 등에 대한 개인의 태도와 정향이 문제가 된다.

네 번째 대상은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자기(self)'이다. 즉 정치체계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자신의 권리, 의무, 능력 등에 대하여 갖는 태도와 정향이 중요시 된다(Almond & Verba 1965, 16-17.).

이처럼 정치의식은 일반적 대상으로서의 정치체계, 투입과 산출과정 및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자아에 대한 각기 다른 정도의 인지적·감정적·평가적 정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의식의 대상이나 그것이 지닌 질적 수준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의 교육수준, 경험, 그리고 그가 놓여 있는 체제의 성격도 적지 않게 작용할 것이다. 알몬드와 버바는 정치의식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하고 있다.

첫 번째, 미분화형이다. 이 유형은 인지적, 감정적, 평가적 정향의 대상에 대한 어떠한 정향도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며, 정치적 태도가 아직 분화되어 있지 못한 유형을 뜻한다. 분화된 구조로서의 통치기구나 정치체제 일반에 대한 의식도 없거니와, '정치'라는 말 자체도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치에 의해서 생기는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도 둔감할 뿐 아니라 정치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없다.

두 번째, 미개형이다. 정치체제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지만,

그것의 기능적 측면, 즉 정치적 측면이나 행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생각해 보지도 못한 유형이다. 자기의 의식세계와는 거리가 먼 곳에 정치는 존재하고 있고, 자기의 생활과도 아무런 기능적 관계가 없다. '정치가 있다'는 것과 '그것이 무엇하는 것이다'는 어렴풋이 알지만, 정치가 무엇을 실현하느냐에 대해서는 무지한 유형이다.

세 번째, 복종형이다. 정치체제 전반에 대한 인지는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특히 '행정적 측면'에 대한 의식수준은 높지만, 투입 측면인 '정치적 측면'에 대한 정향은 무지한 형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정치참여자로서의 자기의식은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적 태도를 복종형이라 부른다. 이 유형의 사람은 중앙집권적인 정부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을 증오할 수도 있으나, 그의 의식 중에는 정부와 정부 내의 고위층을 포함한 관리에 의해 주도되는 '행정적 측면'만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만이 정치의 전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참여자로서의 기량이 결여되어 있는 만큼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의 태도는 수동적이고 정부나 관리에게 복종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네 번째, 소극형이다. 정치체제에 대해서나 그 양측면에 대한 상당한 의식에 도달하고 있으나 '정치와 자기가 무슨 상관이냐'하는 태도를 취하는 유형이다. 정치참여자로서의 자기의 입장에 대한 소극적인 평가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 유형은 정책에 대해서도 일정한 견해가 있고 비판도 할 수 있으며, 정책이 대립되는 과정에 대한 인지도 발달되어 있다. 다만 그가 놓인 정치적, 역사적 상황이라든지 개인의 성격 때문 등, 여하 간에 자기 자신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의 적극적인 참가를 기피하게 된다.

다섯 번째, 참가형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정치체제전반에 대해서나 정치체제의 양측면, 그리고 정치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자신을 생각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가형이라 부를 수 있다. 그 사람의 경우 정치체제의 구조(주로 정부)나 기능에 대한 지식도 갖추고 있고, 평가할 능력도 있으며 또한 그 체제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 물론 그가 실제로 정치행동을 취하느냐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실적인 장해 때문에 행동을 못하거나 소외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행동이 허용될 수 있을 경우, 정치참여를 어떻게 하겠다는 자기 나름의 권력, 전술, 권리 또는 의무에 대한 생각이 갖추어져 있다면, 그의 태도는 분명이 참가형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김하룡 외 1990, 105-106.).

본 연구에서는 위의 이론에 따라 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이 과연 어느 유형에 속하는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들의 정치의식이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봄으로써 고등학생들을 참여적인 민주시민으로 교육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3. 사회경제적 조건, 정치문화, 정치참여

근대화이론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발전은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른 인식능력의 신장과 정치적 정보획득이 보다 용이해지면서 일반시민들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및 선택이 가능하게 되고 정치관여의 수준을 증가시켜 민주적 정치제도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한다. 즉 사회경제적 발전은 교육기회의 확대와 매스미디어 및 정보망의 확산, 지리적 이동성의 증가 및 자발적 결사체의 확산을 가져오고 이러한 증가된 요인들이 시민의 정치적 기술과 정치의식의 세련화를 가져온다(Inglehart, 1990). 그리고 시민의 정치적 기술과 정치의식의

세련화는 정치참여를 증대시키고 정치참여의 증대는 정치적 자유와 평등 및 정부의 대표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결국 민주정치의 발전을 가져온다.(배병룡 2000, 7)

Milbrath & Goel(1977)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가 높을수록 국민의 정치참여 수준이 증가하고 지역공동체의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가 높을수록 지역 주민의 참여 수준이 증가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집단수준의 발전 정도가 집단 수준의 참여를 증대시킨다는 주장이다. 한편 Nie & Verba(1975)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시민적 정향을 더 보유하고 시민적 정향을 더 보유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정치참여를 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하였다(cf. Verba, Nie & Kim, 1978 어수영, 1986). 이 주장은 개인 수준에서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가 정치참여와 영향력을 증대시킨다는 주장이다.(배병룡 2000, 7)

개인 수준에서 의미하는 사회경제적 발전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수학연한, 직업위세, 월 소득 및 재산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총체적으로는 한 개인이 그 사회에서 위치하는 지위에 해당한다(Verba, Nie & Kim, 1978). 이러한 사회 경제적 지위가 정치참여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정치적 효능감 등 다양한 정치 심리적 요인과 사회 심리적 요인 및 사회적 활동을 증가시켜 결국 정치참여를 증가시킨다(Almond & Verba, 1966). 그리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은 기존의 정치문화를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정치문화를 형성하여 정치참여를 증가시키는 매개 요인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학력, 직업위세, 월 소득, 재산 등 네 가지 조건이 참여형 정치문화와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들로 언급되어 왔다(Verba, Nie & Kim, 1978 한배호・어수영, 1987).

본 연구에서는 참여형 정치문화와 정치체제 및 정책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조건으로 고등학생들의 부모의 학력, 직업, 가정 경제 수준을

고려하는 한편, 고등학생들 사이의 차이점, 즉 학년과 학교유형, 계열을 고려하고자 한다.

4. 선행 연구의 고찰

본 연구와 관련성이 있는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주요 선행 연구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해천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민주정치에 관한 태도를 조사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을 조명하기 위해 전체 정치과정을 투입과정과 산출과정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이해천 1985, 7-137). 투입 과정으로는 선전 및 여론, 커뮤니케이션, 정치 참여, 정치적 충원(선거), 압력 단체, 정당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산출 과정은 정치적 리더십,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정치 변동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외에 민주정치 전반, 헌법, 유신, 통일 등에 관하여도 질의하여 분석하였다.

서위태는 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에 대해 정치에 대한 관심, 정치에 대한 인식, 정당에 대한 인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서위태 1989, 4-43). 배영란은 청소년들의 정치의식과 정치 참여를 조사·분석하였으며 그들의 정치 정향, 정치 참여의 현황을 밝히고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정치의식의 변인으로는 묵종, 의인주의, 형식주의, 신뢰성, 평등성, 관용성, 개인의 권리 의식 등을 선정하였고, 정치 참여는 정치적 관심, 매스컴, 정치적 대화, 연설회 참가, 선거 등으로 구분하였다(배영란 1992, 4-68).

정규열은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일반적인 민주 정치의식 및 사회·경제적 배경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올바른 민주 정치 형성을

위한 방향 설정과 우리나라 민주 정치 발전을 위한 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로 연구하였다. 분석을 위해 정치의식을 의식 차원과 대상 차원으로 나누고 다시 의식 차원은 인지, 감정, 평가라는 세 가지 하위 차원으로 분리하였으며 대상 차원은 민주주의에 한정시켜 가치 측면, 제도 측면, 운영 측면, 실천 측면으로 분류하였다. 가치 측면으로는 인간 존엄의 원리, 자유의 원리, 평등의 원리, 개인주의의 원리 등으로, 제도적 측면은 의회 및 행정부와 사법부, 언론, 지방자치제도,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등을, 운영적 측면은 선거에 대해, 민주적 생활 태도로는 준법정신, 서열의식, 공존윤리, 배타적 가족주의 등을 의식 평가의 척도로 선정하였다(정규열 1998, 3-83).

박종남은 국가 의식, 애향 의식, 국가 발전에의 참여 의식, 정치에의 참여 의식, 학생의 자치 활동 참여 의식, 준법 의식 및 질서 의식, 정부에 대한 신뢰, 정치인에 대한 관용 의식, 정치 문화에 대한 인지, 소수 보호에 대한 의식, 통일에 대한 의식을 토대로 정치의식을 분석하였다(박종남 1997, 3-136).

이상과 같이 선행 연구들은 정치의식의 일부분인 국가관, 참여의식, 선거, 투표 행태, 정치적 신뢰감, 준법정신, 정치적 관심, 정치 현실 인식, 통일의식, 이념 의식 등 어느 한 영역이나 차원에서 정치의식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거나 광범위하게 조사한 연구도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많은 이론적 및 방법적 도움을 받았다.

Ⅲ. 연구 방법 및 조사 결과 분석

1. 연구의 방법

가.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를 위한 분석의 모형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도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성별, 학교유형, 학년, 계열, 부 학력, 모 학력, 부 직업, 모 직업, 경제수준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인으로 알몬드와 버바의 연구를 토대로 자아(self)의 정치참여 의식, 정치체제 인식, 산출에 대한 인식으로 나누어 연구를 실시하였다.

자아(self)의 정치참여 의식에서는 첫째, 투표에 대한 참여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성인이 된 후 모든 공직선거에서 투표를 하겠습니까?' 둘째, 선거운동에 대한 참여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성인이 된 후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겠습니까?' 셋째, 정당 참여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성인이 된 후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으로 활동할 생각이 있습니까?' 넷째, 시민단체 참여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성인이 된 후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회원으로 활동할 생각이 있습니까?' 다섯째, 이익집단 참여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성인이 된 후 노조 등 이익집단에 가입하여 회원으로 활동할 생각이 있습니까' 여섯째, 정책 참여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성인이 된 후 정부에서 한·미 FTA와 같은 중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행동하겠습니까' 로 묻고, 1단계는 '그냥 따르겠다' 2단계는 '제공된 정보를 살펴보

는 정도만 하겠다' 3단계는 '정책과 관련된 공청회에 가서 내용을 들어 보겠다' 4단계는 '공청회 등에서 나의 의견을 제시 하겠다' 5단계는 '찬성이나 반대를 위한 시위까지도 참여 하겠다' 로 설정하였다.

정치체제 인식에서는 여당의 이름, 부산광역시장의 이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구청장의 이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국회의원의 이름, UN사무총장의 이름을 알고 있는 지를 물었다.

산출 정책 인식에서는 선거정책 면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 년도, 경제정책 면에서 자유무역협정과 휴대폰 보조금 정책, 사회정책 면에서 대입수학능력고사과 대중교통환승 정책, 문화정책 면에서 스크린쿼터제와 부산국제영화제 정책에 대해 물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 연구를 위한 분석의 모형을 제시하면 < 표 Ⅲ-1 >과 같다.

< 표 Ⅲ-*1* > 분석의 모형

변인	하위변인	조사내용
독립변인	성별	남, 여
	학교유형	남고, 여고, 남녀 공학
	학년	1,2학년
	계열	인문계1학년, 문과, 자연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이상
	아버지 직업	전문·관리직·
		사무직
		판매직·서비스직
		생산직·농어민
		기타
	어머니 직업	전문·관리직·
		사무직
		판매직·서비스직
		생산직·농어민
		주부
	경제수준	잘 산다
		보통이다
		가난하다

▶

변인	하위변인	조사내용
자아(self)	투표	투표참여의식
	선거운동	선거운동참여의식
	정당	정당참여의식
	시민단체	시민단체참여의식
	이익집단	이익집단참여의식
	정책참여	정책참여의식
정치체제	정치시스템 인식	여당명, 부산광역시장명, 구청장명, 국회의원명, UN사무총장명,
산출	정책 인식	차기 대통령 선거 년도
		자유무역협정
		휴대폰 보조금 정책
		대입수학능력고사
		대중교통환승정책
		스크린쿼터제
		부산국제영화제

나.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연구 대상은 부산광역시 소재 인문계 고등학생으로 하였으며 표집대상으로 위 지역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3개교(남고 1개교, 여고 1개교, 남녀공학 1개교)를 무작위로 선정한 후 지인을 통하여 1개교에 1학년과 2학년 각 1반씩 각반 총 40부씩 총 240부의 설문지를 2006년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1주일간에 걸쳐 배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배부된 240부 중 회수되지 않은 것을 제외한 220부를 연구 목적에 맞추어 투표참여, 선거운동 참여, 정당 가입, 시민단체 가입, 이익단체 가입, 정책참여 및 정치시스템 인식, 정책 인식에 대해 성별, 학교유형별, 학년별, 부 학력별, 모 학력별, 부 직업별, 모 직업별, 가정 경제 수준별로 조사·분석하였다.

설문지의 배부 및 회수 현황과 환경요인별 분포를 분석해 본 결과는 <표 Ⅲ-2 >, < 표 Ⅲ-3 >와 같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66.8%, 여학생이 33.2%로 남학생이 여학생의 두 배 정도 많은 분포를 보였다. 학년별로는 2학년이 47.7%, 1학년이 52.3% 이었다. 학교유형별로는 문과계열이 31.4%, 이과계열이 16.4% 이었다.

아버지 학력별로는 고졸이 55%, 전문대졸 이상이 33.6%, 중졸 이하가 10.6%로 나타났다. 어머니 학력별로는 고졸이 66.8%, 전문대졸 이상이

< 표 Ⅲ-*2* >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구분	배부 부수(A)	회수 부수(B)	회수율(B/A × 100)
남 학교	80	70	87.5
여 학교	80	73	91.25
남녀 공학	80	77	96.25
계	240	220	91.67

< 표 Ⅲ-3 >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47	66.8
	여	73	33.2
학년	1학년	115	52.3
	2학년	105	47.7
학교유형	남자고등학교	70	31.8
	여자고등학교	73	33.2
	남여공학고등학교	77	35.0
계열별	인문계1학년	115	52.3
	문과계열	69	31.4
	이과계열	36	16.4
부 학력	중졸 이하	23	10.6
	고졸	121	55.0
	전문대졸 이상	74	33.6
모 학력	중졸 이하	28	12.8
	고졸	147	66.8
	전문대졸 이상	43	19.6
부 직업	전문·관리직	50	22.9
	사무직	70	32.1
	판매직·서비스직	43	19.7
	생산직·농어민	51	23.4
	기타	4	1.8
모 직업	전문·관리직	10	4.6
	사무직	20	9.2
	판매직·서비스직	71	32.6
	생산직·농어민	16	7.3
	기타(주부)	101	46.3
경제수준	잘 산다	16	7.3
	보통이다	177	80.5
	가난하다	27	12.3

19.6%, 중졸 이하가 12.8%로 부모 모두 고졸이 가장 많았다.

아버지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이 22.9%, 사무직이 32.1%, 판매직・서비스직이 19.7%, 생산직・농어민이 23.4%, 기타가 1.8% 이었다. 어머니 직업별로는 전문・관리직이 4.6%, 사무직이 9.2%, 판매직・서비스직이 32.6%, 생산직・농어민이 7.3%, 기타(주부)가 46.3% 이었다. 경제수준별로는 잘

사는 수준 7.3%, 보통수준 80.5% 가난한 수준 12.3%였다.

다. 가설의 설정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은 고등학생의 현재 정치의식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알아보고 독립변인(성별, 학교유형, 학년, 계열, 부모학력, 부모직업,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를 찾아서 어떤 상황이 그들의 정치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보려는 것이다.

따라서 전술한 이론을 근거로 하여 설정된 가설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 고등학생들은 각 독립변인에 따라 자아(self)의 정치참여 의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 고등학생들은 각 독립변인에 따라 정치체제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 고등학생들은 각 독립변인에 따라 정책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 자료의 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처리는 부호화 작업을 거친 후

첫째, 표본의 빈도 분석을 실시한다.

둘째, 8번 문항부터 12번 문항 까지는「항상 --하겠다・매우 그렇다」에 4점, 「대부분 --하겠다・어느 정도 그렇다」에 3점, 「거의 --하지 않겠다・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에 2점, 「절대 --하지 않겠다・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여 각 영역별로 평균점수를 내어 독립변인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다.

셋째, 13번 문항은 1단계에 1점, 2단계에 2점, 3단계에 3점, 4단계에 4점, 5단계에 5점을 부여하여 평균점수를 내어 독립변인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다.

넷째, 14번 문항부터 25번 문항 까지는 정답일 경우 2점, 오답일 경우 1점을 부여하여 각 영역별로 평균점수를 내어 독립변인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다.

다섯째,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치참여 의식의 차이 분석을 알아보기 위해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2. 조사 연구 결과의 해석

고등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개인적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중요하고 생각되는 성별, 학교유형, 학년, 계열, 부모학력, 부모직업, 경제수준을 독립 변인으로 선정하여 정치의식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정치의식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문항별 정치의식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 표 Ⅲ-4 >과 같다.

< 표 Ⅲ-4 > 전체 정치의식

	자아의 정치참여 의식						정치체제에 대한 인지도					산출 정책에 대한 인지도						
	투표참여	선거운동참여	정당참여	시민단체참여	이익집단참여	정책참여	여당의 이름	부산시장의 이름	구청장 이름	지역국회의원 이름	UN사무총장 이름	차기 대통령 선거	자유무역협정 영어명	휴대폰 보조금 정책	대입수학능력 정책	대중교통환승 정책	스크린쿼터제	부산국제영화제
N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220
M	3.16	1.93	1.50	1.78	1.74	2.55	1.36	1.50	1.04	1.12	1.50	1.31	1.65	1.19	1.75	1.31	1.08	1.28
SD	.67	.80	.77	.84	.80	1.15	.48	.50	.20	.33	.50	.46	.48	.39	.44	.47	.27	.45

(N:사례수, M:평균, SD:표준편차)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치의식은 자아의 정치참여 의식부분에서 투표참여는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평균값(M) 3.16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선거운동참여(M=1.93), 정당참여(M=1.93), 시민단체참여(M=1.93), 이익집단참여(M=1.93)에서는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1~2점 사이의 값으로 거의 참여하지 않겠다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책참여에서도 1~5점 범위의 척도에서 평균값(M) 2.55점으로 2단계 '제공된 정보를 살펴보는 정도만 하겠다'와 3단계 '정책과 관련된 공청회에 가서 내용을 들어 보겠다'의 정도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의견제시나 활발한 참여에 대한 의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에서도 1~2점 범위의 척도에서 평균값(M) 1.50인 부산시장 이름과 UN 사무총장 이름을 제외하고 여당의 이름(M=1.36), 구청장 이름(M=1.04),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M=1.12)은 대부분 몰랐으며, 산출정책에 대한 인식에서도 1~2점 범위의 척도에서 평균값(M) 1.65인 자유무역협정과 평균값(M) 1.75인 대입수학능력 정책 이외에 차기 대통령 선거해(M=1.31), 휴대폰 보조금 정책(M=1.19), 대중교통환승 정책(M=1.31), 스

크린 쿼터제(M=1.08), 부산국제영화제(M=1.28)는 모른다가 많았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이들의 정치의식은 미개형을 막 벗어난 상태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투표의식이 높고 정책에 관해 제공된 정보를 살펴보거나 정책에 관한 공청회 등에 가보겠다는 것, 그리고 부산시장 이름, 현재 많이 부각되고 있는 UN사무총장의 이름과 자유무역협정, 본인과 관련된 대입수학능력시험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정치의식이 미개형과 복종형에 속한다고만은 단정 할 수 없다. 가설의 검증을 통해 이들의 정치의식 유형을 좀 더 살펴보고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나. 자아*(self)*의 정치참여 의식 *(가설 1*의 검증*)*

(1) 성별에 따른 자아(self)의 정치참여 의식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별에 따라 자아(self)의 정치참여 의식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 표 Ⅲ-5 >과 같다.

성별에 따른 자아(self)의 정치참여 의식을 살펴본 결과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평균값(M)이 남자 3.16, 여자 3.18인 투표참여 부분을 제외하고는 인문계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 의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에서는 남학생(M=3.16)이 여학생(M=3.18)보다 투표참여가 낮았으나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선거운동참여는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평균 2점 이하로 남여모두 거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M=1.82)보다는 남학생(M=1.98)의 참여도가 조금 높았으나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정당참여에서는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평균 2점 이하로 남자(M=1.50)와 여자(M=1.49) 모두 정당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여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시민단체참여에서도 1～4점 범위의 척도에

서 평균 2점 이하로 남자(M=1.71)와 여자(M=1.92) 모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참여도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났지만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이익집단참여에서도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평균 2점 이하로 남자(M=1.72)와 여자(M=1.78) 모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의 참여도가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정책참여에서는 1~5점 범위의 척도에서 남자는 평균값(M) 2.41, 여자는 평균값(M) 2.82로 모두 2단계(제공된 정보를 살펴보는 정도만 하겠다)와 3단계(정책과 관련된 공청회에 가서 내용을 들어 보겠다) 사이에 머물렀다. 남학생은 2단계에 가깝다면 여학생은 3단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F=6.281, p<0.05).

전반적으로 남학생(M=2.08)보다는 여학생(M=2.17)이 좀 더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활발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표 Ⅲ-5 > 성별에 따른 정치참여 의식

구분		남		여		F	p
		M	N	M	SD		
정치참여의식	투표참여	3.16	147	3.18	73	.051	.822
	선거운동참여	1.98	147	1.82	73	1.921	.167
	정당참여	1.50	147	1.49	73	.001	.975
	시민단체참여	1.71	147	1.92	73	2.869	.092
	이익집단참여	1.72	147	1.78	73	.271	.603
	정책참여	2.41	147	2.82	73	6.281	.013*
	전체	2.08	147	2.17	73		

* : p<0.05 (M:평균, N:사례수, F:일원변량분석값, p:유의수준)

(2) 학교유형에 따른 자아(self)의 정치참여 의식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유형에 따라 정치참여 의식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 표 Ⅲ-6 >과 같다.

학교유형에 따른 자아(self)의 정치참여 의식을 살펴본 결과 1~4점 범위

의 척도에서 평균값(M)이 남자 고등학교 3.13, 여자 고등학교 3.18, 남녀공학 고등학교 3.18인 투표참여 부분을 제외하고는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자아(self)의 정치참여 의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참여에서는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남자 고등학교 평균값(M) 3.13이 여자 고등학교 평균값(M) 3.18과 남녀공학 고등학교 평균값(M) 3.18보다 낮았으나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선거운동참여는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평균 2점 이하로 3유형 모두 거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공학 고등학교 평균값(M) 2.00이 여자 고등학교 평균값(M) 1.82와 남자 고등학교 평균값(M) 1.96보다 조금 높았으나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정당참여에서는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평균 2점 이하로 3유형 모두 거의 정당에 가입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고 남자 고등학교의 평균값(M=1.46)이 가장 낮았다. 시민단체참여에서도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평균 2점 이하로 3유형 모두 거의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 고등학교가 평균값(M)이 1.92로 남자 고등학교 평균값(M) 1.67과 남녀공학 고등학교 평균값(M) 1.75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지만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이익집단참여에서도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평균 2점 이하로 3유형 모두 거의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공학 고등학교의 평균값(M)이 1.81로 남자 고등학교 평균값(M) 1.63과 여자 고등학교 평균값(M) 1.78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정책참여에서는 1~5점 범위의 척도에서 남자 고등학교는 평균값(M) 2.43, 여자 고등학교는 평균값(M) 2.82, 남녀공학 고등학교는 평균값(M) 2.40으로 3유형모두 2단계(제공된 정보를 살펴보는 정도만 하겠다)와 3단계(정책과 관련된 공청회에 가서 내용을 들어 보겠다) 사이에 머물렀다. 남자 고등학교와 남녀공학 고등학교는

2단계에 가깝다면 여학교는 3단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F=3.136, p<0.05).

전반적으로 학교유형에 따라서 큰 차이는 보이지는 않지만, 여자 고등학교(M=2.17)와 남녀공학 고등학교(M=2.11)에 비해 남자 고등학교(M=2.05)의 정치참여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Ⅲ-6 > 학교유형에 따른 정치참여 의식

구분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남녀 공학 고등학교		F	p
		M	N	M	N	M	N		
정치참여의식	투표참여	3.13	70	3.18	73	3.18	77	.140	.869
	선거운동참여	1.96	70	1.82	73	2.00	77	1.010	.366
	정당참여	1.46	70	1.49	73	1.53	77	.173	.841
	시민단체참여	1.67	70	1.92	73	1.75	77	1.604	.203
	이익집단참여	1.63	70	1.78	73	1.81	77	1.029	.359
	정책참여	2.43	70	2.82	73	2.40	77	3.136	.045*
	전체	2.05	70	2.17	73	2.11	77		

* : p<0.05 (M:평균, N:사례수, F:일원변량분석값, p:유의수준)

(3) 학년에 따른 자아(self)의 정치참여 의식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년에 따라 자아(self)의 정치참여 의식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 표 Ⅲ-7 >과 같다.

학년에 따른 자아(self)의 정치참여 의식을 살펴본 결과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평균값(M)이 1학년 3.19, 2학년 3.13인 투표참여 부분을 제외하고는 인문계고등학생들의 자아(self)의 정치참여 의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참여에서는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1학년 평균값(M) 3.19가 2학년 평균값(M) 3.13보다 높았으나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선거운동참여는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1학년 평균값(M) 1.81, 2학년 평균값(M) 2.06으로 모두 거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학년보다는 2학년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F=5.453, p<0.05). 정당참여에서는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1학년은 평균값(M) 1.49,

2학년은 평균값(M) 1.50으로 모두 정당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시민단체참여에서도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1학년의 평균값(M)은 1.77, 2학년의 평균값(M)은 1.79로 모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학년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지만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이익집단참여에서도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1학년의 평균값(M)은 1.73, 2학년의 평균값(M)은 1.75로 모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학년이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정책참여에서는 1~5점 범위의 척도에서 1학년은 평균값(M) 2.56, 2학년은 평균값(M) 2.54로 모두 2단계(제공된 정보를 살펴보는 정도만 하겠다)와 3단계(정책과 관련된 공청회에 가서 내용을 들어 보겠다) 사이에 머물렀다. 1학년의 참여단계가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2학년의 평균값(M=2.11)이 1학년의 평균값(M=1.94)보다 높았지만 그리 큰 차이는 아니었다. 투표참여와 정책참여 부분은 조금이지만 오히려 1학년의 평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혹시 현 교육체제와 방송에 보도되는 정치의 안 좋은 모습 때문에 학생들의 정치의식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선거운동참여, 정당참여, 시민단체참여, 이익집단참여 등으로 폭넓어지긴 하지만 참여를 기피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어 진다.

< 표 Ⅲ-7 > 학년에 따른 정치참여 의식

구분		1학년		2학년		F	p
		M	N	M	N		
정치참여의식	투표참여	3.19	115	3.13	105	.411	.522
	선거운동참여	1.81	115	2.06	105	5.453	.020*
	정당참여	1.49	115	1.50	105	.029	.865
	시민단체참여	1.77	115	1.79	105	.021	.885
	이익집단참여	1.73	115	1.75	105	.041	.840
	정책참여	2.56	115	2.54	105	.008	.930
	전체	1.94	115	2.11	105		

* : p<0.05 (M:평균, N:사례수, F:일원변량분석값, p:유의수준)

(4) 계열에 따른 자아(self)의 정치참여 의식

1학년을 제외한 고등학교 2학년들의 계열에 따른 자아(self)의 정치참여 의식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 표 Ⅲ-8 >과 같다.

계열에 따른 자아(self)의 정치참여 의식을 살펴본 결과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평균값(M)이 문과계열 3.14, 자연계열 3.11인 투표참여 부분을 제외하고는 인문계고등학교 2학년들의 자아(self)의 정치참여 의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참여에서는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문과계열 평균값(M) 3.14가 자연계열 평균값(M) 3.11보다 높았으나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선거운동 참여는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문과계열 평균값(M) 2.01, 자연계열 평균값(M) 2.14로 두 계열 모두 거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과계열보다는 자연계열이 조금 높았으나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정당참여에서는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문과계열은 평균값(M) 1.54, 자연계열은 평균값(M) 1.44로 두 계열 모두 정당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계열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시민단체 참여에서도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문과계열 평균값(M) 1.87, 자연계열 평균값(M) 1.64로 두 계열 모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과계열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지만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이익집단참여에서도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문과계열 평균값(M) 1.84, 자연계열 평균값(M) 1.58로 두 계열 모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과계열이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정책참여에서는 1~5점 범위의 척도에서 문과계열은 평균값(M) 2.59, 자연계열은 평균값(M) 2.44로 두 계열 모두 2단계(제공된 정보를 살펴보는 정도만 하겠다)와 3단계(정책과 관련된 공청회에 가서 내용을 들어 보겠다) 사이에 머물렀다. 자연계열은 2단계에 가깝다면 문과계열은 3단계에 가까운 것

으로 나타났으나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교육과정상 문과계열이 좀 더 많은 사회과 과목을 수강하기 때문에 정치의식이 자연계열보다 높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대한 만큼의 (의미 있는)차이는 나지 않았다. 뒤에서 보겠지만 정치체제 인식이나 산출 정책 인식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는데 정치참여 의식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사회과목을 여전히 대입을 위한 지식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 표 Ⅲ-*8* > 계열에 따른 정치참여 의식

구분		문과계열		자연계열		F	p
		M	N	M	N		
정치참여의식	투표참여	3.14	69	3.11	36	.058	.810
	선거운동참여	2.01	69	2.14	36	.529	.469
	정당참여	1.54	69	1.44	36	.331	.566
	시민단체참여	1.87	69	1.64	36	1.798	.183
	이익집단참여	1.84	69	1.58	36	2.520	.115
	정책참여	2.59	69	2.44	36	.370	.544
	전체	2.17	69	2.06	36		

* : p<0.05 (M:평균, N:사례수, F:일원변량분석값, p:유의수준)

(5) 부모학력에 따른 자아(self)의 정치참여 의식

고등학교 학생들의 부모학력에 따른 자아(self)의 정치참여 의식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 표 Ⅲ-9 >과 같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아(self)의 정치참여 의식을 살펴본 결과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평균값(M)이 부의 학력이 중졸이하 일 때 3.04, 고졸일 때 3.15, 전문대졸 이상 일 때 3.22 그리고 모의 학력이 중졸이하 일 때 3.11, 고졸일 때 3.16, 전문대졸 이상 일 때 3.21인 투표참여 부분을 제외하고는 인문계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 의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참여에서는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부모의 학력에 관계없이 평균값(M)이 3 이상으로 투표참여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선거운동참여는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평균값(M)이

부의 학력이 중졸이하 일 때 2.00, 고졸일 때 1.93, 전문대졸 이상 일 때 1.91 그리고 모의 학력이 중졸이하 일 때 2.07, 고졸일 때 1.90, 전문대졸 이상 일 때 1.95로 부모학력에 관계없이 거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당참여에서도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평균값(M)이 부의 학력이 중졸이하 일 때 1.43, 고졸일 때 1.42, 전문대졸 이상 일 때 1.65 그리고 모의 학력이 중졸이하 일 때 1.46, 고졸일 때 1.44, 전문대졸 이상 일 때 1.72로 부모학력에 관계없이 정당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시민단체참여에서도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평균값(M)이 부의 학력이 중졸이하 일 때 1.70, 고졸일 때 1.69, 전문대졸 이상 일 때 1.97 그리고 모의 학력이 중졸이하 일 때 1.79, 고졸일 때 1.71, 전문대졸 이상 일 때 2.05로 부모학력에 관계없이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이익집단참여에서도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평균값(M)이 부의 학력이 중졸이하 일 때 1.65, 고졸일 때 1.67, 전문대졸 이상 일 때 1.91 그리고 모의 학력이 중졸이하 일 때 1.57, 고졸일 때 1.71, 전문대졸 이상 일 때 1.98로 부모학력에 관계없이 가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조금씩 높아지긴 하지만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정책참여에서도 1~5점 범위의 척도에서 평균값(M)이 부의 학력이 중졸이하 일 때 2.52, 고졸일 때 2.57, 전문대졸 이상 일 때 2.55 그리고 모의 학력이 중졸이하 일 때 2.71, 고졸일 때 2.50, 전문대졸 이상 일 때 2.60로 역시 부모의 학력에 관계없이 2단계(제공된 정보를 살펴보는 정도만 하겠다)와 3단계(정책과 관련된 공청회에 가서 내용을 들어 보겠다) 사이에 머물렀다.

전반적으로 부모학력이 높아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정치참여 의식이 높아지는 모습을 하고 있으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청소

년들의 정치의식이 그들 부모의 학력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Ⅲ-9 > 부모학력에 따른 정치참여 의식

구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F	p
			M	N	M	N	M	N		
정치참여의식	투표참여	부	3.04	23	3.15	121	3.22	74	.623	.537
		모	3.11	28	3.16	147	3.21	43	.204	.816
	선거운동참여	부	2.00	23	1.93	121	1.91	74	.124	.883
		모	2.07	28	1.90	147	1.95	43	.575	.563
	정당참여	부	1.43	23	1.42	121	1.65	74	2.081	.127
		모	1.46	28	1.44	147	1.72	43	2.309	.102
	시민단체참여	부	1.70	23	1.69	121	1.97	74	2.709	.069
		모	1.79	28	1.71	147	2.05	43	2.722	.068
	이익집단참여	부	1.65	23	1.67	121	1.91	74	2.201	.113
		모	1.57	28	1.71	147	1.98	43	2.650	.073
	정책참여	부	2.52	23	2.57	121	2.55	74	.018	.982
		모	2.71	28	2.50	147	2.60	43	.451	.638
	전체	부	2.06	23	2.07	121	2.20	74		
		모	2.12	28	2.07	147	2.25	43		

* : p<0.05 (M:평균, N:사례수, F:일원변량분석값, p:유의수준)

(6) 부모직업에 따른 자아(self)의 정치참여 의식

고등학교 학생들의 부모직업에 따라 자아(self)의 정치참여 의식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 표 Ⅲ-10 >과 같다.

부모의 학력에 따른 자아(self)의 정치참여 의식을 살펴본 결과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평균값(M)이 부의 직업이 전문직·관리직 일 때 3.16, 사무직일 때 3.16, 판매직·서비스직일 때 3.28, 생산직·농어민일 때 3.10, 기타일 때 2.75 그리고 모의 직업이 전문직·관리직 일 때 3.10, 사무직일 때 3.15, 판매직·서비스직일 때 3.18, 생산직·농어민일 때 3.06, 기타(주부)일 때 3.17인 투표참여 부분을 제외하고는 인문계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 의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참여에서는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부모의 학력에 관계없이 평균값(M)이 3 이상으로 부모의 직업에 관계없이 투표참여 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선거운동참여는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평균값(M)이 부의 직업이 전문직·관리직 일 때 1.96, 사무직

일 때 1.89, 판매직・서비스직일 때 2.00, 생산직・농어민일 때 1.92, 기타일 때 1.75 그리고 모의 직업이 전문직・관리직 일 때 1.70, 사무직일 때 1.95, 판매직・서비스직일 때 1.96, 생산직・농어민일 때 1.81, 기타(주부)일 때 1.95로 부모직업에 관계없이 거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당참여에서는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평균값(M)이 부의 직업이 전문직・관리직 일 때 1.76, 사무직일 때 1.41, 판매직・서비스직일 때 1.44, 생산직・농어민일 때 1.45, 기타일 때 1.00 그리고 모의 직업이 전문직・관리직 일 때 1.70, 사무직일 때 1.35, 판매직・서비스직일 때 1.54, 생산직・농어민일 때 1.31, 기타(주부)일 때 1.50으로 부모직업에 관계없이 거의 정당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민단체참여에서는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평균값(M)이 부의 직업이 전문직・관리직 일 때 2.16, 사무직일 때 1.59, 판매직・서비스직일 때 1.81, 생산직・농어민일 때 1.71, 기타일 때 1.50 그리고 모의 직업이 전문직・관리직 일 때 2.20, 사무직일 때 1.85, 판매직・서비스직일 때 1.79, 생산직・농어민일 때 1.38, 기타(주부)일 때 1.79로 아버지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F=6.614$, $p<0.05$), 거의 참여하지 않겠다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어머니의 직업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전문직・관리직이 높이 나타났다. 이익집단참여에서는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평균값(M)이 부의 직업이 전문직・관리직 일 때 2.02, 사무직일 때 1.70, 판매직・서비스직일 때 1.72, 생산직・농어민일 때 1.55, 기타일 때 2.00 그리고 모의 직업이 전문직・관리직 일 때 2.30, 사무직일 때 2.00, 판매직・서비스직일 때 1.75, 생산직・농어민일 때 1.56, 기타(주부)일 때 1.66으로 부의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부: $F=2.469$, $p<0.05$). 그렇지만 거의 참여하지 않겠다에 해당이 되었다. 정책참여에서는 1~5점 범위의 척도에서 평균값(M)

이 부의 직업이 전문직・관리직 일 때 2.74, 사무직일 때 2.53, 판매직・서비스직일 때 2.30, 생산직・농어민일 때 2.67, 기타일 때 2.25 그리고 모의 직업이 전문직・관리직 일 때 2.60, 사무직일 때 2.55, 판매직・서비스직일 때 2.69, 생산직・농어민일 때 2.31, 기타(주부)일 때 2.49로 부모의 직업에 관계없이 2단계(제공된 정보를 살펴보는 정도만 하겠다)와 3단계(정책과 관련된 공청회에 가서 내용을 들어 보겠다) 사이에 머물렀다.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지만 부의 직업이 전문직・관리직인 경우 타 직업군 보다 3단계에 훨씬 가깝게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은 일반적으로 학력과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런 면에서 전문직, 관리직 항목에서 정치참여 의식이 평균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아진다(부 : M=2.3, 모 : M=2.27). 그러나 고학력이라 해도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등 일 경우가 많다. 그리고 현재 고등학생들의 부모들은 고졸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감안하여 직업을 볼 때 전문직・관리직과 생산직・농어민을 비교하여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직업이 자녀의 정치참여 의식에 영향을 주었다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부모의 학력이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생각해 본다. 이는 모의 직업 중 주부의 경우 대졸이상이 포함된 것을 감안해서 생산직・농어민과 비교하면 대부분 평균이 높은 것을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진다.

(7) 집의 경제수준에 따른 자아(self)의 정치참여 의식

고등학교 학생들의 집의 경제수준에 따른 자아(self)의 정치참여 의식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 표 Ⅲ-11 >과 같다.

집의 경제 수준에 따른 정치참여 의식을 살펴본 결과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평균값(M)이 '잘산다' 3.06, '보통이다' 3.18, '가난하다' 3.15인 투표참여 부분을 제외하고는 집의 경제 수준에 따른 인문계고등학생들의 자아(self)의 정치참여 의식을 분석한 결과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 표 Ⅲ-*10* > 부모직업에 따른 정치참여 의식

구분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농어민		기타 (모 : 주부)		F	p
			M	N	M	N	M	N	M	N	M	N		
정치참여의식	투표참여	부	3.16	50	3.16	70	3.28	43	3.10	51	2.75	4	.821	.513
		모	3.10	10	3.15	20	3.18	71	3.06	16	3.17	101	.129	.972
	선거운동참여	부	1.96	50	1.89	70	2.00	43	1.92	51	1.75	4	.204	.936
		모	1.70	10	1.95	20	1.96	71	1.81	16	1.95	101	.332	.856
	정당참여	부	1.76	50	1.41	70	1.44	43	1.45	51	1.00	4	2.193	.071
		모	1.70	10	1.35	20	1.54	71	1.31	16	1.50	101	.619	.650
	시민단체참여	부	2.16	50	1.59	70	1.81	43	1.71	51	1.50	4	3.884	.005*
		모	2.20	10	1.85	20	1.79	71	1.38	16	1.79	101	1.594	.177
	이익집단참여	부	2.02	50	1.70	70	1.72	43	1.55	51	2.00	4	2.469	.046*
		모	2.30	10	2.00	20	1.75	71	1.56	16	1.66	101	2.219	.068
	정책참여	부	2.74	50	2.53	70	2.30	43	2.67	51	2.25	4	1.047	.384
		모	2.60	10	2.55	20	2.69	71	2.31	16	2.49	101	.513	.726
	전체	부	2.3	50	2.05	70	2.09	43	2.07	51	1.88	4		
		모	2.27	10	2.14	20	2.15	71	1.91	16	2.09	101		

* : p<0.05 (M:평균, N:사례수, F:일원변량분석값, p:유의수준)

전체 평균값(M)에서 보듯이 보통이하(보통이다 : M= 2.12, 가난하다 : M=2.11)가 '잘 산다(M=2.04)'라고 한 항목에서 보다 평균이 높게 나오고 있다. 이는 고등학생들에게 가정 경제 수준의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잘 산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이러한 직접적인 참여를 기피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는 뒤에서 보겠지만 정치체제 인식이나 산출 정책 인식 등에서는 대체로 평균이 '잘 산다'가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 표 Ⅲ-*11* > 집의 경제수준에 따른 정치참여 의식

구분		잘 산다		보통이다		가난하다		F	p
		M	N	M	N	M	N		
정치참여의식	투표참여	3.06	16	3.18	177	3.15	27	.214	.807
	선거운동참여	1.94	16	1.90	177	2.07	27	.534	.587
	정당참여	1.25	16	1.51	177	1.52	27	.868	.421
	시민단체참여	1.75	16	1.80	177	1.67	27	.314	.731
	이익집단참여	1.63	16	1.73	177	1.85	27	.431	.651
	정책참여	2.63	16	2.57	177	2.37	27	.391	.677
	전체	2.04	16	2.12	177	2.11	27		

* : p<0.05 (M:평균, N:사례수, F:일원변량분석값, p:유의수준)

다. 정치체제 인식 (가설 2의 검증)

(1) 성별에 따른 정치체제의 인식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정치체제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 표 Ⅲ-12 >와 같다.

정치체제 인식에서는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인식 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여당의 명칭은 1~2점 범위의 척도에서 남학생이 평균값(M) 1.38로 여학생 평균값(M) 1.33보다 높아 좀 더 잘 알고 있었지만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으며 남여 모두 '모른다' 쪽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장의 이름에서는 1~2점 범위의 척도에서 남학생 평균값(M)은 1.45, 여학생 평균값(M)은 1.33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났는데($F=4.669$, $p<0.05$), 남학생은 '모른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학생은 '안다'가 남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구청장의 이름은 1~2점 범위의 척도에서 남학생 평균값(M)은 1.00, 여학생 평균값(M)은 1.22로 남학생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여학생은 아는 경우가 있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F=20.484$, $p<0.05$). 지역 국회의원 이름은 1~2점 범위의 척도에서 남학생 평균값(M)은 1.06, 여학생 평균값(M)은 1.25로 역시 남학생은 거의 모르고 있으나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많이 알 고 있어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F=16.597$, $p<0.05$). UN사무총장의 이름은 1~2점 범위의 척도에서 남학생 평균값(M)은 1.49, 여학생 평균값(M)은 1.52로 대체로 조사 대상의 반 정도가 알고 있으나 남여모두 별 차이가 없었으며 남녀 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남학생(M=1.28)보다 여학생(M=1.38)이 더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의 증가와 교육현장 속에서 여학생의 학습 성취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로 여겨진

다.

< 표 Ⅲ-*12* > 성별에 따른 정치체제 인식

구분		남		여		F	p
		M	N	M	N		
정치시스템	여당 이름	1.38	147	1.33	73	.570	.451
	부산광역시장 이름	1.45	147	1.60	73	4.669	.032*
	구청장 이름	1.00	147	1.22	73	20.484	.000*
	지역 국회의원 이름	1.06	147	1.25	73	16.597	.000*
	UN 사무총장 이름	1.49	147	1.52	73	.183	.669
	전체	1.28	147	1.38	73		

* : p<0.05 (M:평균, N:사례수, F:일원변량분석값, p:유의수준)

(2) 학교유형에 따른 정치체제의 인식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유형에 따른 정치체제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 표 Ⅲ-13 >과 같다.

정치체제 인식에서는 전체적으로 낮은 인식 정도를 보이고 있었다. 여당의 명칭은 1~2점 범위의 척도에서 남자 고등학교 평균값(M)은 1.44, 여자 고등학교 평균값(M)은 1.33, 남녀공학 고등학교 평균값(M)은 1.32로 남자 고등학교가 좀 더 잘 알고 있었지만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으며 학교유형 모두 '모른다' 쪽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장의 이름에서는 1~2점 범위의 척도에서 남자 고등학교 평균값(M)은 1.56, 여자 고등학교 평균값(M)은 1.60, 남녀공학 고등학교 평균값(M)은 1.35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났는데(F=5.638, p<0.05), 남녀공학 고등학교는 모른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자 고등학교와 남자 고등학교는 안다가 남녀공학 고등학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구청장의 이름은 1~2점 범위의 척도에서 남자 고등학교 평균값(M)은 1.00, 여자 고등학교 평균값(M)은 1.12, 남녀공학 고등학교 평균값(M)은 1.00으로 남자 고등학교와 남녀공학 고등학교는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여학교는 아는 경우가 있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F=10.195, p<0.05). 지역 국회의원 이름은 1~2점 범위의 척도에서 남자 고등학교 평균값(M)은 1.04, 여자 고등학교 평

균값(M)은 1.25, 남녀공학 고등학교 평균값(M)은 1.08로 역시 남자 고등학교와 남녀공학 고등학교는 거의 모르고 있으나 여자 고등학교는 좀 더 알고 있어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F=8.500, p<0.05). UN사무총장의 이름은 1~2점 범위의 척도에서 남자 고등학교 평균값(M)은 1.54, 여자 고등학교 평균값(M)은 1.52, 남녀공학 고등학교 평균값(M)은 1.44로 남녀 고등학교는 반 조금 못 되게 알고 있지만 여자 고등학교와 남자 고등학교는 반 조금 넘게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학교유형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남자 고등학교는 평균값(M) 1.32, 여자 고등학교는 평균값(M) 1.36, 남녀공학 고등학교는 평균값(M) 1.24로 남녀공학 고등학교의 평균값이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다.

< 표 Ⅲ-*13* > 학교유형에 따른 정치체제 인식

구분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남녀 공학 고등학교		F	p
		M	N	M	N	M	N		
정치시스템	여당 이름	1.44	70	1.33	73	1.32	77	1.392	.251
	부산광역시장 이름	1.56	70	1.60	73	1.35	77	5.638	.004*
	구청장 이름	1.00	70	1.12	73	1.00	77	10.195	.000*
	지역 국회의원 이름	1.04	70	1.25	73	1.08	77	8.500	.000*
	UN 사무총장 이름	1.54	70	1.52	73	1.44	77	.840	.433
	전체	1.32	70	1.36	73	1.24	77		

* : p<0.05 (M:평균, N:사례수, F:일원변량분석값, p:유의수준)

(3) 학년에 따른 정치체제의 인식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정치체제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 표 Ⅲ-14 >와 같다.

정치체제 인식에서는 전체적으로 2학년(M=1.45)의 인식 정도가 1학년(M=1.2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의 명칭은 1~2점 범위의 척도에서 2학년 평균값(M)은 1.40, 1학년 평균값(M)은 1.33으로 2학년이 좀 더 잘 알고 있었지만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으며 1,2학년 모두 '모른다' 쪽

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장의 이름에서는 1~2점 범위의 척도에서 2학년 평균값(M)은 1.55, 1학년 평균값(M)은 1.45로 2학년이 1학년보다 좀 더 아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구청장의 이름은 1~2점 범위의 척도에서 2학년 평균값(M)은 1.09, 1학년 평균값(M)은 1.00으로 1학년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2학년은 아는 경우가 있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F=10.683, p<0.05). 지역 국회의원 이름은 1~2점 범위의 척도에서 2학년 평균값(M)은 1.15, 1학년 평균값(M)은 1.10으로 역시 1학년은 거의 모르고 2학년은 좀 더 알 고 있었으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UN사무총장의 이름을 아는 것은 1~2점 범위의 척도에서 2학년 평균값(M)은 1.53, 1학년 평균값(M)은 1.47로 1,2학년 모두 별 차이가 없었으며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위 결과와 같이 학년이 높아질수록 정치체제 인식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 표 Ⅲ-*14* > 학년에 따른 정치체제 인식

구분		1학년		2학년		F	p
		M	N	M	N		
정치시스템	여당 이름	1.33	115	1.40	105	1.143	.286
	부산광역시장 이름	1.45	115	1.55	105	2.207	.139
	구청장 이름	1.00	115	1.09	105	10.683	.001*
	지역 국회의원 이름	1.10	115	1.15	105	1.638	.202
	UN 사무총장 이름	1.47	115	1.53	105	.888	.347
	전체	1.23	115	1.45	105		

* : p<0.05 (M:평균, N:사례수, F:일원변량분석값, p:유의수준)

(4) 계열에 따른 정치체제의 인식

고등학교 학생들의 계열에 따른 정치체제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 표 Ⅲ-15 >와 같다.

정치체제 인식에서는 전체적으로 자연계열(M=1.17)보다 문과계열(M=1.44)의 인식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의 명칭에서 1~2

점 범위의 척도에서 문과계열의 평균값(M)은 1.49, 자연계열의 평균값(M)은 1.22로 문과계열이 좀 더 잘 알고 있었고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F=7.599, p<0.05). 부산광역시장의 이름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가 났는데(F=19.499, p<0.05), 1～2점 범위의 척도에서 문과계열의 평균값(M)은 1.70, 자연계열의 평균값(M)은 1.28로 자연계열은 모른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과계열은 안다가 자연계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사는 지역의 구청장의 이름은 1～2점 범위의 척도에서 문과계열의 평균값(M)은 1.13, 자연계열의 평균값(M)은 1.00으로 자연계열은 전혀 모르고 있었으나 문과계열은 아는 경우가 있어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F=5.297, p<0.05). 지역 국회의원 이름 역시 1～2점 범위의 척도에서 문과계열의 평균값(M)은 1.22, 자연계열의 평균값(M)은 1.03으로 자연계열은 거의 모르고 있으나 문과계열은 좀 더 많이 알 고 있어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F=6.892, p<0.05). UN사무총장의 이름을 아는 것도 1～2점 범위의 척도에서 문과계열의 평균값(M)은 1.65, 자연계열의 평균값(M)은 1.31로 계열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12.569,p<0.05).

전반적으로 문과계열학생들이 자연계열학생들 보다 정치체제 인식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시 학교교육과정의 영향으로 판단되어진다.

< 표 Ⅲ-*15*> 계열에 따른 정치체제 인식

구분		문과계열		자연계열		F	p
		M	N	M	N		
정치시스템	여당 이름	1.49	69	1.22	36	7.599	.007*
	부산광역시장 이름	1.70	69	1.28	36	19.490	.000*
	구청장 이름	1.13	69	1.00	36	5.297	.023*
	지역 국회의원 이름	1.22	69	1.03	36	6.892	.010*
	UN 사무총장 이름	1.65	69	1.31	36	12.569	.001*
	전체	1.44	69	1.17	36		

* : p<0.05 (M:평균, N:사례수, F:일원변량분석값, p:유의수준)

(5) 부모학력에 따른 정치체제의 인식

고등학교 학생들의 부모학력에 따른 정치체제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 표 Ⅲ-16 >과 같다.

정치체제 인식에서는 전체 평균값(M)이 부의 학력이 중졸이하 일 때 1.30, 고졸일 때 1.3, 전문대졸 이상 일 때 1.3 그리고 모의 학력이 중졸이하 일 때 1.29, 고졸일 때 1.3, 전문대졸 이상 일 때 1.4로 부모의 학력에 따라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지만, 어머니 학력이 고졸이하 보다 전문대졸 이상일 경우 정치체제를 더 잘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의 명칭, 부산광역시장의 이름, 구청장 이름, 지역 국회의원의 이름, UN 사무총장의 이름 등에서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고졸이하 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체제 인식에서도 부모학력이 전문대졸이상인 경우에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어 부모의 학력은 정치의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단 가정에서 자녀와 더 대화가 많다고 여겨지는 모의 학력이 더 많은 항목에서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이를 볼 때 정치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위해서는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좋지만 가정에서의 대화가 있어야 더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고 여겨진다.

(6) 부모직업에 따른 정치체제의 인식

고등학교 학생들의 부모직업에 따른 정치체제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 표 Ⅲ-17 >과 같다.

정치체제 인식에서는 전체적으로 평균값(M)이 부의 직업이 전문직・관리직 일 때 1.37, 사무직일 때 1.30, 판매직・서비스직일 때 1.30, 생산직・농어민일 때 1.30, 기타일 때 1.15 그리고 모의 직업이 전문직・관리직 일 때

< 표 Ⅲ-*16* > 부모학력에 따른 정치체제 인식

구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F	p
			M	N	M	N	M	N		
정치시스템	여당 이름	부	1.39	23	1.30	121	1.46	74	2.681	.071
		모	1.39	28	1.33	147	1.47	43	1.446	.238
	부산광역시장 이름	부	1.43	23	1.51	121	1.50	74	.230	.795
		모	1.50	28	1.48	147	1.56	43	.372	.690
	구청장 이름	부	1.00	23	1.07	121	1.01	74	2.172	.116
		모	1.04	28	1.03	147	1.09	43	1.839	.162
	지역 국회의원 이름	부	1.09	23	1.09	121	1.19	74	2.219	.111
		모	1.11	28	1.10	147	1.23	43	2.972	.053
	UN 사무총장 이름	부	1.57	23	1.47	121	1.54	74	.627	.535
		모	1.43	28	1.47	147	1.63	43	1.968	.142
	전체	부	1.30	23	1.3	121	1.3	74		
		모	1.29	28	1.3	147	1.4	43		

* : p<0.05 (M:평균, N:사례수, F:일원변량분석값, p:유의수준)

1.48, 사무직일 때 1.30, 판매직・서비스직일 때 1.30, 생산직・농어민일 때 1.30, 기타(주부)일 때 1.31로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단지 어머니 직업에 따라 지역 국회의원 이름 부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4.117, p<0.05), 1~4점 범위의 척도에서 평균값(M)이 모의 직업이 전문직・관리직 일 때 1.40, 사무직일 때 1.15, 판매직・서비스직일 때 1.13, 생산직・농어민일 때 1.00, 기타(주부)일 때 1.11로 전문직이거나 관리직의 직업을 가진 쪽이 좀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부모가 전문직이거나 관리직인 경우 좀 더 정치시스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참여 의식과 마찬가지로 정치체제 인식에서도 전문직・관리직인 경우 대체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평균이 높았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부모의 학력과 연관되어 당연한 결과로 여겨진다.

(7) 집의 경제수준에 따른 정치체제의 인식

고등학교 학생들의 집의 경제수준에 따른 정치체제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 표 Ⅲ-18 >과 같다.

정치체제 인식에서는 전체적으로 '잘 산다'의 평균값(M)은 1.35, '보통이

< 표 Ⅲ-*17* > 부모직업에 따른 정치체제 인식

구분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농어민		기타 (주부)		F	p
			M	N	M	N	M	N	M	N	M	N		
정치시스템	여당 이름	부	1.42	50	1.36	70	1.30	43	1.37	51	1.25	4	.403	.806
		모	1.60	10	1.45	20	1.27	71	1.38	16	1.39	101	1.540	.192
	부산광역시장 이름	부	1.62	50	1.43	70	1.42	43	1.57	51	1.25	4	1.873	.116
		모	1.70	10	1.45	20	1.52	71	1.38	16	1.50	101	.727	.574
	구청장 이름	부	1.04	50	1.06	70	1.02	43	1.04	51	1.00	4	.240	.916
		모	1.00	10	1.10	20	1.01	71	1.00	16	1.06	101	1.257	.288
	지역 국회의원 이름	부	1.14	50	1.14	70	1.12	43	1.10	51	1.00	4	.308	.872
		모	1.40	10	1.15	20	1.13	71	1.00	16	1.11	101	2.461	.046*
	UN 사무총장 이름	부	1.64	50	1.47	70	1.47	43	1.47	51	1.25	4	1.382	.241
		모	1.70	10	1.55	20	1.44	71	1.50	16	1.50	101	.726	.575
	전체	부	1.37	50	1.30	70	1.30	43	1.30	51	1.15	4		
		모	1.48	10	1.30	20	1.30	71	1.30	16	1.31	101		

* : p<0.05 (M:평균, N:사례수, F:일원변량분석값, p:유의수준)

다'의 평균값(M)은 1.31, '가난하다'의 평균값(M)은 1.27로 '잘 산다'의 경우에 정치체제 인식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보이나 집의 경제수준에 따라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잘 산다'의 경우 여당, 부산광역시장, 지역 국회의원, UN사무총장 이름에서 다른 집단 보다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지만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 표 Ⅲ-*18* > 집의 경제수준에 따른 정치체제 인식

구분		잘 산다		보통이다		가난하다		F	p
		M	N	M	N	M	N		
정치시스템	여당 이름	1.44	16	1.36	177	1.37	27	.211	.810
	부산광역시장 이름	1.50	16	1.50	177	1.48	27	.021	.979
	구청장 이름	1.00	16	1.05	177	1.00	27	1.136	.323
	지역 국회의원 이름	1.19	16	1.14	177	1.00	27	2.355	.097
	UN 사무총장 이름	1.63	16	1.49	177	1.52	27	.584	.558
	전체	1.35	16	1.31	177	1.27	27		

* : p<0.05 (M:평균, N:사례수, F:일원변량분석값, p:유의수준)

라. 산출 정책 인식 (가설 *3*의 검증)

(1) 성별에 따른 산출 정책 인식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산출 정책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

의 < 표 Ⅲ-19 >와 같다.

산출 정책 인식에서는 전체적으로 남자(M=1.34)보다는 여자(M=1.43)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차기 대통령 선거의 해는 1~2점의 척도의 범위에서 남자 평균값(M) 은 1.29, 여자 평균값(M)은 1.34로 모두 모르는 경우가 아는 경우 보다 많았으며 남녀 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자유무역협정에서는 1~2점의 척도의 범위에서 남자 평균값(M)은 1.64, 여자 평균값(M)은 1.68로 남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휴대폰 보조금 정책에서는 1~2점의 척도의 범위에서 남자 평균값(M) 은 1.15, 여자 평균값(M)은 1.26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났지만 ($F=3.971$, $p<0.05$), 남여 모두 모르는 경우가 더욱 많았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조금 더 많았다. 대입수학능력고사의 경우 1~2점의 척도의 범위에서 남자 평균값(M)은 1.72, 여자 평균값(M)은 1.79로 남여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부산 대중교통환승 정책에서는 1~2점의 척도의 범위에서 남자 평균값(M)은 1.30, 여자 평균값(M)은 1.34로 남여 모두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스크린쿼터제의 경우 1~2점의 척도의 범위에서 남자 평균값(M)은 1.03, 여자 평균값(M)은 1.18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F=16.605$, $p<0.05$), 남여모두 대부분 모르고 있었으나 남학생은 거의 모르고 있고 여학생이 좀 더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1~2점의 척도의 범위에서 남자 평균값(M)은 1.22, 여자 평균값(M)은 1.40으로 역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F=7.369$, $p<0.05$),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이 알고 있었다. 산출 정책 인식에서도 역시 전체적으로 여학생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부분에서 일반적인 현상으로 여겨지듯이 여학생들의 관심이 더 높았다.

< 표 Ⅲ-*19* > 성별에 따른 산출 정책 인식

구분			남		여		F	p
			M	N	M	N		
정책	선거정책	차기 대통령 선거 년도	1.29	147	1.34	73	.566	.453
	경제정책	자유무역협정	1.64	147	1.68	73	.443	.506
		휴대폰보조금 정책	1.15	147	1.26	73	3.971	.048*
	사회정책	대입수학능력고사	1.72	147	1.79	73	1.382	.241
		부산대중교통환승 정책	1.30	147	1.34	73	.419	.518
	문화정책	스크린쿼터제	1.03	147	1.18	73	16.605	.000*
		부산국제영화제	1.22	147	1.40	73	7.369	.007*
	전체		1.34	147	1.43	73		

* : p<0.05 (M:평균, N:사례수, F:일원변량분석값, p:유의수준)

(2) 학교유형에 따른 산출 정책 인식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유형에 따른 산출 정책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 표 Ⅲ-20 >과 같다.

산출 정책 인식에서 1~2점의 척도의 범위에서 남자 고등학교 평균값(M)은 1.41, 여자 고등학교 평균값(M)은 1.34, 남녀공학 고등학교 평균값(M)은 1.18로 차기 대통령 선거의 해는 학교유형 모두 모르는 경우가 아는 경우보다 많았으나 남자 고등학교가 아는 경우가 좀 더 있어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F=5.085, p<0.05). 자유무역협정에서는 1~2점의 척도의 범위에서 남자 고등학교 평균값(M)은 1.64, 여자 고등학교 평균값(M)은 1.68, 남녀공학 고등학교 평균값(M)은 1.64로 학교유형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휴대폰 보조금 정책에서는 1~2점의 척도의 범위에서 남자 고등학교 평균값(M)은 1.09, 여자 고등학교 평균값(M)은 1.26, 남녀공학 고등학교 평균값(M)은 1.21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났지만(F=3.850, p<0.05), 학교유형 모두 모르는 경우가 더욱 많았으며 여자고등학교, 남녀공학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났다. 대입수학능력고사의 경우 1~2점의 척도의 범위에서 남자 고등학교 평균값(M) 은 1.76, 여자 고등학교 평균값(M)은 1.79, 남녀공학 고등학교 평균값(M)은 1.69로 학교유형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부산 대중교통환승 정책에서는 1~2점의 척도의 범위에서 남자 고등학교 평균값(M)은 1.37, 여자 고등학교 평균값(M)은 1.34, 남녀공학 고등학교 평균값(M)은 1.23으로 학교유형 모두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스크린쿼터제의 경우 1~2점의 척도의 범위에서 남자 고등학교 평균값(M)은 1.04, 여자 고등학교 평균값(M)은 1.18, 남녀공학 고등학교 평균값(M)은 1.01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F=8.527$, $p<0.05$), 학교유형 모두 대부분 모르고 있었으나 남자 고등학교와 남녀공학 고등학교는 거의 모르고 있고 여학교가 좀 더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1~2점의 척도의 범위에서 남자 고등학교 평균값(M)은 1.31, 여자 고등학교 평균값(M)은 1.40, 남녀공학 고등학교 평균값(M)은 1.01로 역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F=6.546$, $p<0.05$), 여자 고등학교, 남자 고등학교, 남녀공학 고등학교 순으로 여자 고등학교가 더 많이 알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남녀공학 고등학교(M=1.30)보다는 남자 고등학교(M=1.37)나 여자 고등학교(M=1.43)가 높은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년에 따른 산출 정책 인식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산출 정책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 표 Ⅲ-21 >과 같다.

산출 정책 인식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의 해는 1~2점의 척도의 범위에서 1학년 평균값(M)은 1.34, 2학년 평균값(M)은 1.28로 1,2학년 모두 모르는 경우가 아는 경우 보다 많았으며 2학년 보단 1학년이 좀 더 알고 있는 것

< 표 Ⅲ-*20* > 학교유형에 따른 산출 정책 인식

구분			남자 고등학교		여자 고등학교		남녀 공학 고등학교		F	p
			M	N	M	N	M	N		
정책	선거정책	차기 대통령 선거 년도	1.41	70	1.34	73	1.18	77	5.085	.007*
	경제정책	자유무역협정	1.64	70	1.68	73	1.64	77	.224	.800
		휴대폰보조금 정책	1.09	70	1.26	73	1.21	77	3.850	.023*
	사회정책	대입수학능력고사	1.76	70	1.79	73	1.69	77	1.147	.319
		부산대중교통환승 정책	1.37	70	1.34	73	1.23	77	1.830	.163
	문화정책	스크린쿼터제	1.04	70	1.18	73	1.01	77	8.527	.000*
		부산국제영화제	1.31	70	1.40	73	1.14	77	6.546	.002*
	전체		1.37	70	1.43	73	1.30	77		

* : p<0.05 (M:평균, N:사례수, F:일원변량분석값, p:유의수준)

으로 나타났으나, 1,2학년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자유무역협정에서는 1~2점의 척도의 범위에서 1학년 평균값(M)은 1.64, 2학년 평균값(M)은 1.67로 1,2학년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휴대폰 보조금 정책에서는 1~2점의 척도의 범위에서 1학년 평균값(M)은 1.13, 2학년 평균값(M)은 1.25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났지만(F=5.039, p<0.05), 1,2학년 모두 모르는 경우가 더욱 많았으며 2학년이 1학년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대입수학능력고사의 경우 1~2점의 척도의 범위에서 1학년 평균값(M)은 1.69, 2학년 평균값(M)은 1.81로 1,2학년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학년 보다 2학년이 더 잘 아는 것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F=4.393, p<0.05). 부산대중교통환승 정책에서는 1~2점의 척도의 범위에서 1학년 평균값(M)은 1.33, 2학년 평균값(M)은 1.30으로 1,2학년 모두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스크린쿼터제의 경우 1~2점의 척도의 범위에서 1학년 평균값(M)은 1.08, 2학년 평균값(M)은 1.08로 1,2학년 모두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역시 1~2점의 척도의 범위에서 1학년 평균값(M)은 1.25, 2학년 평균값(M)은 1.31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산출 정책 인식에서는 대체적으로 2학년(M=1.46)이 1학년(M=1.31)보다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 표 Ⅲ-*21* > 학년에 따른 산출 정책 인식

구분			1학년		2학년		F	p
			M	N	M	N		
정책	선거정책	차기 대통령 선거 년도	1.34	115	1.28	105	1.014	.315
	경제정책	자유무역협정	1.64	115	1.67	105	.129	.719
		휴대폰보조금 정책	1.13	115	1.25	105	5.039	.026*
	사회정책	대입수학능력고사	1.69	115	1.81	105	4.393	.037*
		부산대중교통환승 정책	1.33	115	1.30	105	.313	.576
	문화정책	스크린쿼터제	1.08	115	1.08	105	.003	.954
		부산국제영화제	1.25	115	1.31	105	1.042	.309
	전체		1.31	115	1.46	105		

* : p<0.05 (M:평균, N:사례수, F:일원변량분석값, p:유의수준)

(4) 계열에 따른 산출 정책 인식

고등학교 학생들의 계열에 따른 산출 정책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 표 Ⅲ-22 >와 같다.

산출 정책 인식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의 해는 1~2점의 척도의 범위에서 문과계열 평균값(M)은 1.36, 자연계열 평균값(M)은 1.11로 계열 모두 모르는 경우가 아는 경우 보다 많았으나 문과계열이 좀 더 아는 것으로 나타나 계열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F=7.887, p<0.05). 자유무역협정에서는 1~2점의 척도의 범위에서 문과계열 평균값(M)은 1.84, 자연계열 평균값(M)은 1.33으로 문과계열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F=36.353, p<0.05). 휴대폰 보조금 정책에서는 1~2점의 척도의 범위에서 문과계열 평균값(M)은 1.33, 자연계열 평균값(M)은 1.08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났지만(F=8.422, p<0.05), 계열 모두 모르는 경우가 더욱 많았으며 문과계열이 이과계열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대입수학능력고사의 경우 1~2점의 척도의 범위에서 문과계열 평균값(M)은 1.86, 자연계열 평균값(M)은 1.72로 계열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부산대중교통환승 정책은

1~2점의 척도의 범위에서 문과계열 평균값(M)은 1.36, 자연계열 평균값(M)은 1.17로 계열 모두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며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스크린쿼터제의 경우 1~2점의 척도의 범위에서 문과계열 평균값(M)은 1.10, 자연계열 평균값(M)은 1.03으로 계열 모두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자연계열은 거의 모르고 있고 문과계열이 좀 더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1~2점의 척도의 범위에서 문과계열 평균값(M)은 1.45, 자연계열 평균값(M)은 1.06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F=19.921, p<0.05), 자연계열보다 문과계열이 더 많이 알고 있었다. 산출 정책 인식에서는 전체적으로 문과계열(M=1.47)이 자연계열(M=1.21)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교육과정상 당연한 결과로 생각된다.

< 표 Ⅲ-*22* > 계열에 따른 산출 정책 인식

구분			문과계열		자연계열		F	p
			M	N	M	N		
정책	선거정책	차기 대통령 선거 년도	1.36	69	1.11	36	7.887	.006*
	경제정책	자유무역협정	1.84	69	1.33	36	36.353	.000*
		휴대폰보조금 정책	1.33	69	1.08	36	8.422	.005*
	사회정책	대입수학능력고사	1.86	69	1.72	36	2.727	.102
		부산대중교통환승 정책	1.36	69	1.17	36	4.454	.037*
	문화정책	스크린쿼터제	1.10	69	1.03	36	1.821	.180
		부산국제영화제	1.45	69	1.06	36	19.921	.000*
	전체		1.47	69	1.21	36		

* : p<0.05 (M:평균, N:사례수, F:일원변량분석값, p:유의수준)

(5) 부모학력에 따른 산출 정책 인식

고등학교 학생들의 부모학력에 따른 산출 정책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 표 Ⅲ-23 >과 같다.

산출 정책 인식에서는 전체 평균값(M)이 부의 학력이 중졸이하 일 때 1.30, 고졸일 때 1.30, 전문대졸 이상 일 때 1.30 그리고 모의 학력이 중졸이하 일 때 1.32, 고졸일 때 1.40, 전문대졸 이상 일 때 1.40으로 부의 학력보다는 모의 학력이 고졸이상 일 때 더 잘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 정책 인식에서 차기 대통령선거 년도, 경제정책, 사회정책, 문화정책에서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자유무역협정과 부산대중교통환승정책을 제외하고는 고졸이하 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정책 중 부산국제 영화제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F=3.829, p<0.05), 문화정책 전체에 대해 유의미한 차가 나타났다(F=3.104, p<0.05).

산출 정책 인식에서도 부모의 학력이 전문대졸이상일 경우 많은 항목에서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 표 Ⅲ-*23* > 부모학력에 따른 산출 정책 인식

구분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이상		F	p
				M	N	M	N	M	N		
정책	선거정책	차기 대통령 선거 년도	부	1.22	23	1.32	121	1.31	74	.498	.608
			모	1.21	28	1.30	147	1.40	43	1.372	.256
	경제정책	자유무역 협정	부	1.61	23	1.69	121	1.61	74	.711	.493
			모	1.54	28	1.67	147	1.65	43	.978	.378
		휴대폰 보조금 정책	부	1.22	23	1.16	121	1.23	74	.862	.424
			모	1.11	28	1.17	147	1.26	43	1.394	.250
	사회정책	대입수학 능력고사	부	1.74	23	1.74	121	1.76	74	.054	.947
			모	1.79	28	1.71	147	1.81	43	1.014	.365
		부산대중교통환승 정책	부	1.22	23	1.34	121	1.31	74	.662	.517
			모	1.21	28	1.33	147	1.33	43	.708	.494
	문화정책	스크린쿼터제	부	1.17	23	1.06	121	1.07	74	1.95	.145
			모	1.11	28	1.07	147	1.09	43	.331	.719
		부산국제영화제	부	1.30	23	1.26	121	1.31	74	.264	.768
			모	1.25	28	1.23	147	1.44	43	3.829	.023*
	전체		부	1.30	23	1.30	121	1.30	74		
			모	1.32	28	1.40	147	1.40	43		

* : p<0.05 (M:평균, N:사례수, F:일원변량분석값, p:유의수준)

(6) 부모직업에 따른 산출 정책 인식

고등학교 학생들의 부모직업에 따른 산출 정책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 표 Ⅲ-24 >와 같다.

정책 인식에서는 전체적으로 부의 직업이 전문직·관리직 일 때 1.22, 사무직일 때 1.30, 판매직·서비스직일 때 1.40, 생산직·농어민일 때 1.20, 기타일 때 1.25 그리고 모의 직업이 전문직·관리직 일 때 1.20, 사무직일 때 1.40, 판매직·서비스직일 때 1.30, 생산직·농어민일 때 1.20, 기타(주부)일 때 1.26으로 대체로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관리직이 아닐 때가 좀 더 높은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금의 차이지만 대입수학능력고사 부분에서는 어머니가 전문직이거나 관리직(M=1.80)인 경우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책의 영향이 어떨지에 대해 안정적인 전문직이나 관리직보다는 다른 직업군에서 더욱 크게 관심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이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정치참여 의식이나 정치체제 인식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다.

< 표 Ⅲ-*24* > 부모직업에 따른 산출 정책 인식

구분				전문직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서비스직		생산직 농어민		기타 (주부)		F	p
				M	N	M	N	M	N	M	N	M	N		
정책	선거정책	차기 대통령 선거년도	부	1.26	50	1.30	70	1.42	43	1.27	51	1.25	4	.835	.504
			모	1.30	10	1.35	20	1.34	71	1.31	16	1.28	101	.226	.924
	경제정책	자유무역 협정	부	1.64	50	1.66	70	1.65	43	1.65	51	1.75	4	.052	.995
			모	1.60	10	1.60	20	1.65	71	1.81	16	1.64	101	.545	.703
		휴대폰 보조금 정책	부	1.16	50	1.23	70	1.16	43	1.20	51	1.00	4	.527	.716
			모	1.10	10	1.30	20	1.18	71	1.13	16	1.17	101	.698	71
	사회정책	대입수학 능력고사	부	1.74	50	1.73	70	1.81	43	1.69	51	2.00	4	.858	.490
			모	1.80	10	1.65	20	1.77	71	1.75	16	1.73	101	.371	.829
		부산대중 교통환승 정책	부	1.28	50	1.33	70	1.28	43	1.37	51	1.25	4	.358	.838
			모	1.30	10	1.30	20	1.30	71	1.25	16	1.34	101	.166	.955
	문화정책	스크린 쿼터제	부	1.02	50	1.07	70	1.07	43	1.14	51	1.00	4	1.374	.244
			모	1.00	10	1.05	20	1.08	71	1.06	16	1.09	101	.328	.859
		부산국제 영화제	부	1.22	50	1.33	70	1.40	43	1.20	51	1.25	4	1.577	.182
			모	1.20	10	1.40	20	1.30	71	1.19	16	1.26	101	.686	.602
	전체		부	1.22	50	1.3	70	1.4	43	1.2	51	1.25	4		
			모	1.2	10	1.4	20	1.3	71	1.2	16	1.26	101		

* : p<0.05 (M:평균, N:사례수, F:일원변량분석값, p:유의수준)

(7) 집의 경제수준에 따른 산출 정책 인식

고등학교 학생들의 집의 경제수준에 따른 산출 정책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아래의 < 표 Ⅲ-25 >와 같다.

산출 정책 인식에서는 요즘 국가적인 관심사인 자유무역협정과 고등학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대입수학능력고사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른 정책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집의 경제 수준에 따른 인문계고등학생들의 산출 정책 인식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으로 볼 때 '잘 산다'의 평균값(M)은 1.39, '보통이다'의 평균값(M)은 1.36, '가난하다'의 평균값(M)은 1.38로 집단 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잘 산다'의 경우 평균값이 다른 집단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 표 Ⅲ-25 > 집의 경제수준에 따른 산출 정책 인식

구분			잘 산다		보통이다		가난하다		F	p
			M	N	M	N	M	N		
정책	선거정책	차기 대통령 선거 년도	1.38	16	1.31	177	1.30	27	.178	.837
	경제정책	자유무역협정	1.69	16	1.65	177	1.67	27	.056	.946
		휴대폰보조금 정책	1.19	16	1.19	177	1.15	27	.147	.863
	사회정책	대입수학능력고사	1.88	16	1.72	177	1.85	27	1.884	.155
		부산대중교통환승 정책	1.25	16	1.32	177	1.33	27	.176	.839
	문화정책	스크린쿼터제	1.00	16	1.07	177	1.15	27	1.641	.196
		부산국제영화제	1.31	16	1.29	177	1.22	27	.288	.750
	전체		1.39	16	1.36	177	1.38	27		

* : $p<0.05$ (M:평균, N:사례수, F:일원변량분석값, p:유의수준)

Ⅳ. 결론 및 제언

참여민주주의를 말하는 시대에 올바른 참여를 위해서 정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따라서 국가의 미래 사회를 짊어지고 갈 우리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을 파악함에 있어서 이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 정도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 정치발달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본 연구는 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치의식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치의식 유형을 알아본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여러 상황 중에 그들의 정치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찾아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부산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치의식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치의식 유형이 어떤지를 살피고, 정치의식이 성별, 학교유형, 학년, 계열별, 사회·경제적 변인의 제 요인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조사·분석함으로써 현 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치의식 현황을 살펴본다.

그래서 본 연구의 가설을 고등학생들은 성별, 학교유형, 학년, 계열별, 사회·경제적 변인의 제 요인에 따라 정치참여 의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서술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는 관련 문헌과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자아(self)의 정치참여 의식에는 투표참여 의식과 선거운동 참여, 정당 참여, 시민단체 참여, 이익단체 참여, 정책참여 의식을 설정하였으며, 정치체제 인식과 산출 정책 인식(선거, 경제, 사회, 문화 정책)로 설정하였다.

조사 대상은 부산광역시 일반계고등학교 3개교(남학교 1, 여학교 1, 남녀공학 1)의 학생 220명이고, 조사 도구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점수가 높

을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정치의식을 살펴보기 위해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self)의 정치참여 의식에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높은 정치참여 의식을 보였다. 이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의 증가가 여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학교유형별에서는 남학교의 정치참여 의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학년 보다는 2학년이 정치참여 의식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당연한 결과이지만 문과계열이 자연계열보다 높은 정치참여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가정환경 부분에서는 부모학력이 높고, 직업군이 전문직·관리직 일 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체제 인식에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높은 정치체제 인식을 보였다. 이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의 증가와 높은 학업성취의욕이 여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학교유형별에서는 남녀공학 학교의 정치체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학년 보다는 2학년이 정치체제 인식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당연한 결과이지만 문과계열이 자연계열보다 높은 정치체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가정환경 부분에서는 부모학력이 높고, 직업군이 전문직·관리직 일 때, 가정의 경제수준이 좋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출 정책 인식에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높은 산출 정책 인식을 보였다. 이는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의 증가와 높은 학업성취의욕이

여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학교유형별에서는 남녀공학 학교의 산출 정책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학년 보다는 2학년이 산출 정책 인식이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당연한 결과이지만 문과계열이 자연계열보다 높은 산출 정책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가정환경 부분에서는 부모학력이 높고, 직업군이 전문직·관리직이 아닐 때, 가정의 경제수준이 좋을 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참여 의식이나 정치체제 인식과는 달리 직업군이 전문직·관리직이 아닐 때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다른 직업군이 정책의 영향을 더욱 받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종합적으로 현 인문계 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의 유형은 현재는 복종형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제 요인에 계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교육과정상 심화된 사회과목을 배울수록 그들의 인식이 높아지는 것을 볼 때, 어느 정도 고정된 가정환경의 요인 보다는 학교 교육의 방향이 긍정적으로 발전할 때 이들의 정치의식을 소극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참여형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일반계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 의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과 또 다른 연구를 위한 제언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투표에서 높은 참여 의식을 보여 현실의 투표율과 대조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우리 교육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투표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참여 하겠다' 가 아닌 '절대 참여하지 않겠다' 와 '거의 참여하지 않겠다' 사이에 머물러 있어 우리 교육이 앞으로 참여민

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위해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정치체제 인식과 정책 인식에 있어서 학년이 높을수록, 문과계열일수록 좀 더 높은 인식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1학년과 자연계열의 경우에도 정치교육을 더욱 중요시 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적인 정치참여 의식의 증가를 위해 지금과 같이 투표만을 강조하는 학교자치활동에서 더 광범위한 직접적인 참여를 강조하는 학교자치활동으로의 전환을 통해 실제적인 효과를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남·여간 정치의식은 남자가 높다고 믿어져왔으나 청소년들의 현실은 오히려 여학생들이 더욱 활발히 참여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여성의 참여가 급격히 늘어나는 사회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이 후로 남녀 모두 높은 정치참여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치에서도 참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본 연구가 작으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연구를 마치면서 가지는 작은 바램이다.

참 고 문 헌

김대환. 1997. “참여의 철학과 참여민주주의”, 참여사회연구소,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서울 : 창작과비평사.

김재영. 1983. 『정치사회화론』. 대왕사.

김하룡 외. 1990. 『정치학원론』. 서울: 전영사.

류태건. 2004. “참여민주주의의 이론과 현실: 참여정부의 참여민주주의 비판.” 『한국시민윤리학회보』. 한국시민윤리학회.

배병룡. 2000. “지방의 정치문화와 정치참여-진주시 사례”, 『사회과학연구 제18집』 제2호.

손혁재. 1997. “참여민주주의의 정치제도 구상.”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서울: 창작과 비평사.

어수영. 1986. 『현대 일본 정치론』. 서울: 법문사.

이해천, ‘청소년들의 민주정치에 대한 태도조사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1985), 석사학위논문.

정규열, ‘고등학교 학생들의 민주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1998), 석사학위논문

정영태. 1997. “정당과 참여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와 한국 사회』. 서울: 창작과 비평사.

한배호・어수영. 1987. 『한국정치문화』. 서울: 법문사.

박종남, ‘청소년의 정치의식과 정치사회화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1997), 석사학위논문

배영란, ‘청소년의 정치의식 조사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1992), 석사

학위논문

서위태, '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1989), 석사학위논문

Arnstein, S. R.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American Institute for Planning*, July.

Gabriel A. Almond and Sidney Verba. 1966. 『The Civic Culture』. Boston: Little, Brown & Co..

Inglehart, Ronald. 1990. Cultural Shift in Advanced Industries.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Milbrath, Lester W. and M. L. Goe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Nagel, J. 1987. *Participation.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Nie, Norman H. and Sidney Verba. 1975. "Political Participation." *In Fred I. Greenstein and Nelson W. Polsby, eds. Handbook of Political Science 4: Nongovernmental Politics. Reading, Mass.*: Addison-Wesley.

Pateman, C., 1992, "Equality, Difference, Subordination: the Politics of Motherhood and Woman's Citizenship," *Beyond Equality and Difference, ed.*, G. Bock and S. James(London:Routledge),

Verba, Sidney, Norman H. Nie, and Jae-On Kim. 1978.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quality: A Seven-Nation Comparis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여러분의 정치참여 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이 설문지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문항에 따라 해당 사항에 "**V**" 해주시면 됩니다. 순수 연구를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될 것이므로 한 문항도 빠트리지 마시고 솔직히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 4.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일반사회전공

연구자 강 광 철 올림

※ 다음은 기초 질문입니다. 해당_____에 *V*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생의 성별은?

_____① 남자

_____② 여자

2. 학생의 학교유형은?

_____① 남자고등학교

_____② 여자고등학교

_____③ 남여공학고등학교

3. 학생의 학년은?

_____① 1학년

_____② 2학년

_____③ 3학년

4. 학생의 계열은?

_____① 인문계 1학년

_____② 인문계 문과계열

_____③ 인문계 자연계열

※ 다음은 여러분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가정환경)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일치하는 난에 V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부모님의 최종 학력은?

학력 / 부모	①초등학교 졸업	②중학교 졸업	③고등학교 졸업	④전문대 및 대학 졸업	⑤대학원 이상
5-1) 아버지					
5-2) 어머니					

***6.* 부모님의 직업을 아래 □에서 골라 그 번호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6-1) 아버지_____ 6-2) 어머니_____

① 전문직 : 의사, 약사, 간호사, 변호사, 판사, 검사, 회계사, 대학교수, 연구원, 교사, 언론인, 방송인, 종교인, 체육인, 예술가, 엔지니어 ② 관리직 : 기업체 경영주(5인 이상 고용), 기업체 간부(부장이상), 고급공무원(중앙관서 과장, 지방관서 국장 이상), 군인(영관급이상), 경찰(경장이상) ③ 사무직 : 회사원, 은행원, 일반 공무원, 전화교환수, 집배원, 군인, 경찰, 소방수, 간수	④ 판매직 : 도소매상인, 판매점원, 부동산 중개인, 외판원 ⑤ 서비스직 : 음식점, 여관, 이˙ 미용실, 세탁소, 수위, 환경미화원 ⑥ 생산직 : 생산 감독, 숙련기능공, 공장근로자, 견습공, 비숙련자, 단순노무자, 운전사 ⑦ 농어민 : 농업, 축산, 낙농업자, 선주, 어부, 수산양식업자 ⑧ 기타 : 주부, 무직, 정년퇴직, 연금생활자

7. 우리 집의 경제 수준은?

_____① 아주 잘 사는 편이다

_____② 비교적 잘 사는 편이다

_____③ 보통이다

_____④ 가난한 편이다

_____⑤ 매우 가난한 편이다

※ 다음 질문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의_____에 *V*표를 해주세요.

8. 성인이 된 후 모든 공직선거에서 투표를 하겠습니까?

_____① 항상 투표하겠다

_____② 대부분 투표하겠다

_____③ 거의 투표하지 않겠다

_____④ 절대 투표하지 않겠다

9. 성인이 된 후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겠습니까?

_____① 항상 선거운동을 하겠다

_____② 대부분 선거운동을 하겠다

_____③ 거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

_____④ 절대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

10. 성인이 된 후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으로 활동할 생각이 있습니까?

_____① 매우 그렇다

_____② 어느 정도 그렇다

_____③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

_____④ 전혀 그렇지 않다

11. 성인이 된 후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회원으로 활동할 생각이 있습니까?

_____① 매우 그렇다

_____② 어느 정도 그렇다

_____③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

_____④ 전혀 그렇지 않다

12. 성인이 된 후 노조 등 이익집단에 가입하여 회원으로 활동할 생각이 있습니까?

_____① 매우 그렇다

_____② 어느 정도 그렇다

_____③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

_____④ 전혀 그렇지 않다

13. 성인이 된 후 정부에서 한·미 FTA와 같은 중요한 정책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 행동하겠습니까?

_____① 1단계 : 그냥 따르겠다

_____② 2단계 : 제공된 정보를 살펴보는 정도만 하겠다

_____③ 3단계 : 정책과 관련된 공청회에 가서 내용을 들어 보겠다

_____④ 4단계 : 공청회 등에서 나의 의견을 제시하겠다

_____⑤ 5단계 : 찬성이나 반대를 위한 시위까지도 참여하겠다

※ 다음 질문을 읽고 _____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현재 우리나라의 여당의 이름은 _____ 이다.

15. 현 부산광역시 시장의 이름은 _____ 이다.

16. 다음 중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찾아서 구청장 이름을 쓰시오.

강서구_____	금정구_____	남구_____	기 장 군_____
동 구_____	동래구_____	북구_____	부산진구_____
사상구_____	사하구_____	서구_____	수 영 구_____
연제구_____	영도구_____	중구_____	해운대구_____

17.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 이름은 _____ 이다.

18. 현 UN 사무총장의 이름은 _____ 이다.

19. 우리나라 차기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는 몇 년도인가? _____

20. 자유무역협정의 영어식 표현을 쓰시오. _____

21. 휴대폰 보조금 정책에 따라 영상통화기능이 없는 일반적인 휴대폰 구입 시 보조금을 받으려면 몇 개월 이상 사용자가 해당되는지 쓰시오. _____

22. 대입수학능력고사는 몇 등급으로 나누는지 쓰시오._____

23. 부산의 지하철까지 포함한 대중교통환승정책의 시행일은 언제인가? _____

24. 영화산업에서의 스크린쿼터제에 따라 한국영화 의무 상영일은 365일 중 며칠인지 쓰시오._____

25. 부산국제영화제의 영어식 표현을 쓰시오._____